



죽비와 목탁

가연숙 기자

ornflower@buddhapia.com



불교상품, 명품으로 거듭나길

올해로 20회를 맞은 불교문화상품공모전에서 육조마개 '연지'가 대상 수상했다. 마개부분에 입욕제를 넣고 육조에 물을 채우면 물위에 뜬 연꽃 형상이 사찰 연못의 수련을 연상시킨다. 시각적 재미와 동시에 입욕제에 의한 수치료법(水治療法)은 심신의 건강을 도모한다. 세계적으로 마음 치유에 관한 문화콘텐츠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불교사상과 적절히 접목된 아이디어 상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캐릭터 상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비 대상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유통문제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뛰어나도 시장 상황이 파악되지 않고 제작된 제품은 사랑받기 어렵다. 소비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제품이 결론적으로 뛰어난 아이디어 상품이다.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시대를 풍미하는 유행을 간파해야 한다. 소구대상의 일상을 파악해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제공받는 기능적 측면과 정신적인 가치 또한 부여되어야 한다. 제품의 가격 역시 구매자의 환경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치밀한 기획력으로 제품의 실용적 가치가 지속 관리될 때 명품 대

열에 오르게 된다. 우리 주변의 불교문화상품에는 무엇이 있을까? 영상·광학 기기의 선두 브랜드 '캐논(Canon)'이 대표 사례다. 불교의 '관세음보살'을 일컫는 일본어 캐논(WANON)에서 캐논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겠지만, 창립이념이 불교라는 사실이 불자들에게 자부심을 준다.

프랑스 파리에 1996년 문예점점 레스토랑 '부다바(Buddha bar)' 또한 불교에 심취한 유럽인들의 명소다. 그곳의 VJ 끝포드살은 '부다바' 앨범을 10집까지 발매했으며 '영혼의 불꽃같은 음악'이라는 찬사 속에 라운지 음악의 문화아이콘이 됐다.

불교는 연기법을 바탕으로 한 지혜의 종교다. 지혜의 근간인 중도(中道)를 가능케 하는 힘은 머무름 없는 실상의 본성을 향시 바로 보는 깨어있음에 있다. 불교문화상품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절제된 욕망의 쓰임이 되는 길은 생산과 소비 사이의 불교적 상생이념이 기반 될 때 가능하다. 일상용품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향시 유념할 때 불교문화상품은 단순 소비재가 아닌 행복의 동반자로 승화될 것이다. 앞으로 불교문화상품이 생활 속의 명품으로 자리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불교포탈 부다피아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온라인서적 여시어문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http://ad.buddhapia.com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시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이웃위해 희망·행복·자비나눔운동 펼칠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신년기자회견서 자비행 강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망과 행복을 나누는 자비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올 한 해 보시바라미를 중점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지관 스님은 1월 13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2009년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해 모든 불자와 국민이 힘을 모아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면 능히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잘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지만, 대외국사 구별 기념비를 중국에 세운 것은 매우 뜻 깊었다. 올해가 임기 마지막 해인 만큼 그간 진행해온 일을 잘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새해 5대 중무기조와 사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지관 스님은 △전법과 복지의 진흥 △수행중흥의 사회화 △중흥진작과 수행승가 진흥 △한국불교의 세계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특히 “어려운 시기인만큼 적극적으로 자비의 나눔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관 스님은 사찰이 중심이 되어 불자들이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비 나눔운동으로 ‘한 끼 나누기’ 운동, ‘희망의 등 달기’ 운동, ‘이웃을 위한 108배 기도’ 등을 제시하고, ‘실의에 빠진 청년 실업자와 중소기업들을 위해 ‘실직자와 청년 실업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의지나눔(Share will)’ 사업 등으로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관 스님은 △10·27 법난 명예회복과 한국전통사상서



한글본 및 영영본 발간 △국제선센터 및 템플스테이정보센터 연내 완공 △조계사 성역화 사업 진행 △불교규제 국가 법령 개선 △무형문화재 종단 지정 사업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회견의 1문1답.

-올해는 총무원장 임기 마지막 해다. 취임하면서 계획했던 10대 공약에 대한 성과와 자평해 달라.

“10가지 공약 중에 그대로 이행이 된 것도 있고 중간에 시작한 것도 있다. 지금 추진중인 것도 있다. 10월 31일까지 임기를 채운다면 9개월 정

도 남았다. 가장 뜻깊은 일은, 중조 도의국사의 구법비를 세운 일이다. 종통을 재정립한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수행면에서는 결계와 포살을 시행했다. 지금까지 총림에서는 해고에 있는 일이지만 최퇴한 상

태영기 때문에 법적, 의무적으로 제도와 해 작년 여름부터 시행했다. 금년 동안 거 해제가 되면 그 명단이 나올 것이다. 포교분야에서는 어린이 포교를 중점 추진했다. 민중스럽지는 못하지만 진행 중이다.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템플스테이 정보센터가 조계사 건너편에 2월 말 준공된다. 목동의 국제템플스테이센터도 금년 연말에 공사가 마무리된다. 아울러 마곡사 전통문화지원센터는 법장 스님 때 시작한 일이지만 내가 착공을 해서 오는 2-3월 개원한다. 전법회관도 임기 내에 마무리했다. 취임해서 3년 동안 템플스테이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고 느끼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전(가산불교대사팀) 15권을 마무리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다. 수행도 해야 하고, 죽기 전에 할 일을 마쳐야 한다. 원장이나 누구나 임기 만료 15일 전에 등록을 하고 10일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있다. 선거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것은 시끄럽게 만드느라 일이다. 적당한 시기에 말할 때가 있을 것이다.”

-총무원장 퇴임 후 동국대 이사장으로 가신다는 설도 있다.

“나도 그 이야기를 한 달 전쯤에 들었다. 3월쯤이면 간다고 하는데 누가 말도 잘 만들어낸다. 동국대 이사장으로 가려고 하면 종단에서 이 사후보로 추천받아야 하고, 동국대 이사회에서 선출해줘야 한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이냐고 물으면 상당히 많다. 맑은 자유니까 따질 것은 없지만 아무 근거도 없다.”

-이미 종단 곳곳에서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준비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일각에서는 ‘지관 스님 만한 분이 없다’며 재임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도 한다. 총무원장 퇴임 후 활동 계획은?

-지난해 공직자들의 종교편향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조계종에서 종교편향 문제를 유야무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모두 오해다. 8월 27일 범불교대회에 이어 대구, 광주에서 대회를 가졌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모임을 갖고 대회를 갖고 하면 식상해진다. 일단 매듭을 짓고 종교편향을 방지한다는 의지를 지속해서 가져야 한다는 뜻은 확고하다.”

-경제난으로 어려운 시기, 불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현실문제를 회피하지 못하는 만큼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국민 모두가 첫째로 건강해야 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서 한 톨이라도 아껴쓰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자리이타 원력으로 어려움 극복위해 최선” 26개 종단 및 불교 지도자 신년하례법회 봉행



1월 14일 조계사에서 열린 종단합 신년하례회에서 지관 스님은 “자리이타 원력으로 난국을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는 1월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최정호, 진각종 총무원장 최정호, 진각종 총무원장 최정호, 진각종 총무원장 최정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성 기자

껍데기만 통과된 종교차별금지법, 불교계 우롱?

입법통과된 종교차별금지법에 처벌조항이 빠져 불교계가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징계조항을 삭제한 대체입법을 행정안전위원회 명의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13일 입법,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1월 14일 대변인 장적 스님(총무원 기획실장) 명의의 논평에서 “국가법상 처음으로 공직자 종교차별금지 관련법이 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법위반자의 처벌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우며, 개정안 시행과정에서 미반영된 범죄조항도 더 풍부

한 논의를 통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도 13일 논평을 통해 “개정안은 종교활동의 중립을 담은 최초 입법으로 의미가 있으나, 처벌조항이 빠져 반조거리”라며 “처벌조항 삭제로 생색내기식 법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사건),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해령감독, 강원대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太古·石屋禪風萬古에 빛나소서 韓中友誼海東禪宗中興太古普愚顯章紀念碑건립

귀의 삼보 하옵고, 불조의 혜명을 계승하고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밝히며 태고조사의 종지·종풍을 신앙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중흥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한「한중우의 해동선종 중흥 태고보우 현창기념비」를 수법 이후 661년만에 중국 무산 천호암 사지에 아담한 전각 속에 세우고 12월 15일 오전에는 제막법회를, 오후에는 석옥·태고와 차에 대한 한중학술발표회를 개최한 후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제막 법회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간 태고현창 기념비를 건립하기 위해 발원하며 정성을 모아주신 본 법인 임원제외와, 함께 주관하신 국제선사문화연구회 최석환 대표와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님, 그리고 중국인민정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불조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법인 태고연구원 임원 여러분들은 그 지극한 원력과 성금으로 정성껏 세운 태고 현창기념비를 태고법손의 주체 종단인 한국불교 태고종과 태고법손들에게 그 공덕을 모두 회향 하셨습니다. 태고 법손으로서 해야 할 일, 뜻 깊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크게 감사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마하반야아라리미

태고보우 현창기념비 건립위원회(본 연구원 임원)

大法主 慧草德永(宗正), 證明 理事 雲山大行(總務院長), 南坡定修(僧正院長), 一字華山(元老會議 議長), 雪峰慧宗(元老會議 副議長), 吉祥德化(元老會議 副議長), 諮問委員 理事 法海度奇(一鵬門徒會長), 普經學鉉(總務院 副院長, 大輪門徒會長), 德山法蓮(京畿北部宗務院 元老), 慧空慧超(法規委員會 委員長), 法藏慧日(少林寺), 研究審查委員長 徐閔吉(東國大學校 前 大學院長), 研究委員 徐輔鶴(慶熙大 教授), 無相法顯(總務院 交流協力室長), 朴正鎮(漢陽大 教授), 理事長 無空無上(中央選舉管理委員長), 常任理事 研究院長 圓光大隱(中央布教院長, 中央宗會 副議長), 太古學會長 保惠青峰(中央初審院長), 禪林院長 能園慧俊(德菴門徒會 前 會長), 圓融院長 常虛性宗(宗正禮敬室長, 濟州宗務院長), 企劃理事 青河慧明(中央選舉管理委員, 京畿東部 司正院長), 總務理事 性徹慧德(德修寺), 教務理事 妙華光海(金佛寺), 財務理事 龍潭濟民(法藏禪院), 社會理事 眞覺性虛(黃輪寺), 組總理事 法京智常(總務院 企劃部長, 蓮興寺), 弘報理事 建立委員長 鏡忍古貞(金龍寺), 護法理事 覺性性德(修德寺), 研究理事 聖坡慧覺(京畿北部 宗務院長), 道學慧日(正房寺), 法雨英華(前 江北 宗務院長), 慈明慧實(寶光寺), 蔣盛淨忍(龍殿寺), 如初如初(全國比丘尼會 前 會長, 無量寺), 鏡園普賢(海東佛院 總務), 般若喜緒(清水寺), 佛印智覺(金龍寺), 眞空智雄(新林寺), 正印慧懼(日本 大光寺), 淨潭慧雲(法規委員, 慧雲寺), 瑞巖法修(京畿中部 宗務院長), 碧波雲松(大邱宗務院 司正副院長), 義法智悟(大邱宗務院 副院長), 蓮湖月檀(德華寺), 和明慧華(普賢寺), 大空幸得(全國比丘尼會 會長), 明悟慈心(廣法寺), 慧眞一志(隱仙庵), 監查 覺夢慧承(三論宗 副宗正), 禹宗坤(영인 이연씨 代表理事), 韓國佛教太古宗 太古會, 諸葛妙得(如來聖), 徐輔展(性院), 徐庚泰(佛光), 徐永珠(清淨華), 徐永善(清淨聖), 徐榮志(清淨光), 徐兌娟(清淨覺), 李仙花(金剛海), 李賢淑(淨金海), 朴義鎮(大聖), 朴範埃(慧覺), 朴廷恩(慧覺華), 李海煥(常明), 李忠柱, 李錫柱, 崔仁順(佛成智), 柳山秀(普德華).

주최 韓國佛教太古宗 太古法孫

주관 社團法人 大輪佛教文化研究院.太古學會 理事長 無空無上 徐甲生

서울 강북구 수유4동 584-12(무량사내) / 전화 02)904-0081, 0016 FAX 904-0083 H.P 011-750-0016